



최근 'ELS(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y)' 87호가 100% 손실로 마감하면서 ELS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투자했던 계좌의 잔고가 '0'이 되면서 은행 창구로 찾이가 돈을 내놓으려고 행패를 부리거나, 손실의 반은 은행이 책임지라는 생떼까지 부린 투자자가 속출하는 등 ELS에 대한 피장이 커지고 있다.

물론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마치 원금을 보장하면서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양 관매를 했던 판매회사의 영업 행태가 문제다. 하지만, 어렵게 모은 종자돈을 잘 지키고 놓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투자설명서 한 번 읽지 않았던 투자자에게 무엇보다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ELS는 투자금액의 일정 이상 비율을 채권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면서 나머지는 옵션이나 선물

ELS도 위험지대... 알아야 극복한다

〈주가연계증권〉

고수의 고위험... 성공이냐 실패냐는 '자신의 몫' 원금 손실여부 등 투자 설명서 꼼꼼이 체크해야

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추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2가지의 증권(대부분 주식)을 선정하여 기준일을 설정해놓고 기준기보다 일정 이상 하락 또는 상승 하지 않을 경우 연 10% 내외의 수익을 돌려주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구조의 ELS는 두 가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투자대상이 되는 채권이 부실화되는 위험이 있고, 두 번째는 처음에 설정했던 파생상품의 조건이 만기

시까지 미달되는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의 기준가를 설정해놓고, A·B 모두 기준기의 80% 이상일 경우 연 13%를 보장하고, 아니라도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하락분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조건의 ELS가 있다. 이 경우 A·B 주식 중 하나가 기준기의 80% 이하로 만기 시까지 유지될 경우 하락분만큼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005년 이후 종합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ELS가 인기를 끌었고, 90% 이상의 ELS가 초기 상황 됐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들이 위험성이 있는 ELS는 원금은 보장하면서 수익률은 높은 금융상품으로 포장시켰고,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은 가린 채 단기 투자대상 중 가장 매력적인 상품으로 여겨졌다.

'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금융 명언이 있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험을 견뎌야하고, 이 때만이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ELS는 원금의 대부분을 잊을 수도 있는 'High Risk'를 부담하고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은 시중금리의 2~3배 수준인 'Low Return' 상품으로 볼 수 있다.

값이 싼 물건을 살 때도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정보를 듣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일반 서민들이다. 하물며 어렵사리 모든 종자돈을 투자할 때는 이보다 훨씬 신중하게 판단하고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대상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에 대한 성공이나 실패는 결국 자신의 몫이고, 그 누구도 손실을 대신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코스피 63.63P 폭락... 2000선 붕괴

고유가·低달러 등 악재... 상승 동력 꺾이니 촉각

증시에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지수가 8일 폭락세를 보이며 2000선이 붕괴된 가운데 장기 조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유가, 미국 경기의 둔화, 원화 강세, 수급여건의 악화 등 그 동안 잠복해 있던 악재가 한꺼번에 불거져 나오면서 증시가 심각한 상승 모멘텀 부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2000선 내외의 흥보장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8일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63.63포인트(3.11%) 내린 1,979.56으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14.43포인트(1.82%) 내린

779.65로 장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증시의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면 지금처럼 악재가 한꺼번에 겹칠 경우에는 상승 흐름이 꺾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투자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베럴당 100달러에 유행하는 고유가 문제이다.

전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장중에 배럴당 98.62달러까지 오르면서 1983년 선물거래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구나 전날 다우존스지수가 2.64% 급락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국내 증시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뉴욕 증시는 서브프라임기지 부실 확산에 고유가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악세를 면치 못하는 분위기이다.

미국 경기의 둔화는 다시 달러 악세와 이로 인한 국제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수출주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는 원화 강세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이중증중의 악재인 셈이다.

한 전문가는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6,000을 돌파한 후 그리고 인도 선색스지수가 20,000을突破은 후 과열 우려로 인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는 것처럼 코스피지수도 2,000선 안착을 위한 진통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내년말부터 '전국 호환'

교통카드 운행 3사 협약

이들 3사는 전국 호환을 위해 각 사업별로 산업자원부가 제정한 표준지불보안체계와 규격을 적용한 호환 카드를 개발하기로 했으며 전국 호환카드 개발이 마무리되는 6월부터 각 사업자 유동망을 통해 카드를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이미 교통카드 호환이 이뤄지고 있어 쿠미아비 운영 중인 지역과의 호환만 이뤄지면 된다.

쿠미아비는 부산과 광주의 호환에 대비한 새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호환카드가 발행되면 즉시 호환이 가능하며 나머지 지역은 내년 말까지 시스템을 교체해 호환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미아비는 부산·울산·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 일부 등 10개 시도,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과 제주, 쿠미아비는 인천과 경기도의 교통카드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대구와 대전은 다른 사업자가 교통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한 장의 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연말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호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발행된 교통카드는 5천만장 이상에 이르지만 전국 호환이 안

돼 지역별로 다른 교통카드를 구입하거나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3사의 합의가 이행되면 내년 6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부산, 광주에서는 한 장의 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연말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호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005년 3월부터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연합뉴스



빼빼로 대신 가래떡 선물하세요 8일 서울 남산한옥마을에서 열린 가래떡 뽑기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전남지역의 12개 브랜드쌀로 만들어진 1천111m 길이의 가래떡을 만든 뒤 환호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11월 11일을 가래떡데이로 정하고 빼빼로 대신 쌀로 만든 가래떡을 선물하는 등 우리 쌀을 먹자는 운동의 의미를 담고 있다.

콜금리 연 5% 현수준 유지

이성태 韓銀총재 동결 시사... 물가 상승 주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8일 당분간 콜금리를 동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고, 시중 유동성도 여전히 풍부한 상황이지만 고유가 및 세계 금융시장 불안 등의 여파로 경기둔화 가능성도 대두하고 있어 이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목표치를 연 5.0%로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수개월간 물가상승률은 3~3.5%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조금씩 높아지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 한은의 물가인정목표(2.5~3.5%)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세계 경제환경에서 오는 생산활동의 약화, 즉 경기약화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에 (통화정책 운영시) 양쪽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속 고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금융 경력 없으면 은행 임원 못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사외이사 등 자격 강화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장을 포함한 은행임원과 사외이사의 자격이 엄격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은행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托 중인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법상 임원의 범위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은행장과 부행장에서 미등기 부행장으로 확대되고 임원의 자격 조건에 일정기간의 금융회사 근무 경력 등이 추가된다.

현행 은행법상 임원은 등기이사를 가리키는데 현재 대부분 은행에서 은행장과 수석 부행장 정도만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다. 부행장 수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최대 15명에 이른다.

은행법과 감독규정은 금융관련 법률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미등기 부행장도 은행법상 임원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 경영 책임을 져야 하고 자격요건에 금융경력 등이 추가됨에 따라 금융경험이 미미하거나 없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낙하산 인사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미혼 직장인 결혼 조건은?

성격 > 애정 > 돈 > 직업 順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아르바이트천국은 리서치 전문기관인 엘브레인과 함께 미혼 직장인 1천193명을 대상으로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설문한 결과, 53.6%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결혼 때 가장 필요한 조건은 성격(51%), 애정(22%), 돈(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랑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애인이 프리포즈를 한다면 거절하겠다'는 답변도 56%에 달했다.

결혼 상대방에게 이런 점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는 바람기(47%), 부채(34%), 무리한 훈수(11%) 등이 꼽혔다. 이 밖에 42%는 '독신으로 삶의 향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와인 한 병에 3,040만원

2005년산 '오르넬라이야' 美경매서 낙찰

아리스트 헤밍웨이가 한때 '세상에서 가장 품위있는 것'으로 칭송했던 와인. 그 명성에 걸맞은 고가의 와인이 등장 눈길을 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5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3만3천600달러(한화 약 3천40만원)에 낙찰된 2005년산 오르넬라이야 레드 와인.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는 시장가의 400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와인 한 잔에 500달러 정도인 셈이다.

750ml짜리 보통 와인의 12배 분량인 9L짜리 이 '초대형 와인'은 살라만자르(Salamanazar)라고 불리는 특수한 병에 담겨 있으며, 병 표면에는 종이 라벨 대신 글으로 '특별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오르넬라이야 와인은 이탈리아 투스카나 지방의 해안도시 리보르노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도 한 병에 수십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와인은 경매가 시작된 지 50초만에 미국인 미야클 콜리스의 손에 넘어갔다.

콜리스는 와인 뿐 아니라 이탈리아 피렌체와 주변의 유명 포도원을 둘러볼 수 있는 6일짜리 여행권까지 부상으로 거머쥐었다.

/연합뉴스

“한국 가계부채율 美·日보다 높다”

IMF, 신용경색 우려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3대 리스크로 높은 가계부채율과 빠른 고령화,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을 꼽았다.

제럴드 쉬프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강연에서 "한국의 가계부채율은 굉장히 높다"면서 "한국의 자산대비 부채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높은 고령화 속도가 기록을 세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한국의 15~64세 노동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노인인구 부양비율이 급상승해 이미 G7국가 평균을 추월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는 정부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며 "연금에 대한 부담, 보건복지에 대한 부

답이 커질 것이고, 노동인구가 향후 10년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쉬프 부국장은 또 "한국은 제조·서비스 부문 생산성 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서비스 부문 생산성이 낮다"면서 "한국은 더 이상 저임금 생산적 노동인구를 가진 국가가 아니고, 앞으로 서비스 부문이 한국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개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한국경제와 관련, "지난 8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부터 비롯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잘 견뎌냈다"면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나 환율을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안정적인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가계부채율은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금리가 인상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정민)은 2007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4만9천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전국 대상자는 85만명에 달한다. 소득세